

# 우리나라 고대사 揆園史話 ③4

(구원사화) **■ 一沙權正孝**  
 (한국인재개발원 회장·애국운동연합고문 울진)



사서는 다른 고서와 비교해도 매우 오래된 책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서지학자이며 국립도서관에서 고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장지연 선생도 확인했듯이 종이의 질과 글씨 그리고 제호를 표지에 바로 쓴 것 등으로 미루어 조선 중기의 것임이 틀림없었다. 틀린 글자 때문에 종이를 버릴 수 없었 그 위에 종이를 오려 붙여 바로잡은 데도 여러 곳이 저자의 소박한 일면을 엿볼 수 있었다. …… 이 사서의 원전을 조사하면서 북에 노인의 깊은 사려에서 비롯된 민족사의 방향 지침을 다시 한번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잊을 수 없는 일이다. (후략)

(지난호에 이어) 한국인재개발원회장,애국운동연합고문 무투 행운은 편중되지 않고 재주는 독점됨이 없기에 백성과 사물에게는 위난이 없을 수 없고 가문과 국가의 흥망은 반복됨이 무상하다 할 것이니, 지금 조선의 불행 또한 장래 행운의 실마리가 될 것인가? 내가 살펴보건대 인심은 분열되고 백성의 사기는 소침하니, 이에 붓을 던지고 길게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노다. 오호라 환인(桓因)이여! 오호라 환인(桓因)이여! 지금의 한 조카 진역(震域)과 한 즐기 유민(遺民)은 장차 어찌될 것인가! 장차 어찌될 것인가!  
 《구원사화》의 현존하는 판본을 크게 나누면, 본사에서 저본으로 이용한 ‘국립도서관 소장본’을 ‘뿌리社에서 영인·출판한 것(편의상 ‘영본’이라 한다)’과 ‘양주동 소장본 계열 6종(편의상 ‘양필본’이라 한다)’ 등 두 부류가 있다. 먼저 ‘영본은 조선 중기로 예상되는 시기에 실명서(고평석씨는 북에노인이 직접 쓴 일서라 하였다)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서, 영인시 첨부된 고평석님의 影印後記 내용을 일부 전제하면 다음과 같다.  
 《구원사화》는 조선조 숙종 2년(음로, 1675년)에 북에(北虜) 노인이 쓴 우리의 상고사이다. …… 필자는 우리의 고대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구원사화》에 관한 사료적 가치를 조사하다가 이 원전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대할 수 있었다. 이

## 槐雲칼럼

# 광복절(光復節)과 건국절(建國節)

■ 槐雲 權海兆(한국인재개발원 부회장)



렙 치사에서도 오늘날은 대한민국 건설제1회와 제4회 해방일과 같이 경축하는 날이라고 언급하였다. 제 2회 광복절 행사는 6·25한국전쟁으로 대규모로 초라하게 마쳤으며, 51년 제 3회는 광복절 행사는 부산에서 거행했으나 모 신문기자가 ‘광복 6주년 기념식’으로 언론에 보도하여 이때부터 광복절이 해방일로 알려져, 올해도 언론매체들이 광복(정부수립, 완전독립) 67주년이 아니라 광복(해방) 70주년으로 보도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올해로 해방 70주년, 정부 수립 67주년을 맞았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1945년 8월15일 해방일과 1928년 8월15일 정부수립일이 같은 날이다. 그래서인지 아직까지 8·15 경축행사를 두고 광복절이나 건국절이냐를 두고 의견이 양분되어 2중 행사까지 치루고 있다.  
 논쟁 핵심은 광복절이 대한민국 건국(정부수립, 독립) 기념일이나, 일제식민지에서 벗어난 해방 기념일이나의 견해 차이다. 건국일을 자유 민주 국가수립을 중시하는 편에서는 1948년 제헌국회에서 성립된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인 1948년 8월15일을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독립운동을 중시하는 광복회나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편은 상해임시정부 설립된 1919년 4월13일과 해외 임시정부가 통합된 날인 1919년 9월16일을 주장하고 있으며, 8.15를 대한민국 건국일로 정하면 그 이전의 역사를 무시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헌헌법 전문(48.7.17)에 ‘대한민국은 기미삼십독립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로 되어있으나 제 3공화국 헌법(62.12.26)부터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로 개정하였고, 현행헌법(87.10.29)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범법을 계승하고’로 되어있다.  
 그리고 2008년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행사에서 임시정부는 미래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정치적 결사체로서 요건(영역의 실효적 지배, 국제사회승인)을 갖추지 못해 범국가적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어 1948년 제헌국회에서 새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으며 헌법전문에 임시정부를 정신적인 계승을 한 의미로 나타낸다고 하였다.

## ■ 역사기행

# 면암(勉庵)최익현(崔益鉉)선생의 행적지(行蹟地)를 찾아서

□ 향촌 권오창 (본원 지문위원)

2015년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본국 대마도에서 순국하신 최익현선생의 행적지를 찾기로 하였다.

선생은 대한제국 말년에 특히 일제침략의 마수를 뺏치던 시기 구국의 일념을 가지고 일제에 항거하여 의병활동 등으로 나라를 지킨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살펴봄은 오늘날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

민족주의 사학자들에 의하여 인용되어 여러 가지 역사 서적이 출판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면 A.D.1920년 경에도 민간에 그 사본이 전래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현전하는 《구원사화》의 필사본은 A.D.1940년(단기 4273년, 昭和 15년) 9월에 양주동(梁柱東)이 비장하고 있던 소장본을 손진태(孫晉泰)가 3본을 필사하여 소장하고 있다가, 광복 후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서울대학교 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에 각각 1부씩 기증하여 소장하고 있던 중에 고려대학교본은 A.D.1976년에 아세아 문화사에서 영인 발간한 사실이 있고, 서울대학교본은 그 후 없어졌다가 방중현(方鍾鉉)이 소장하고 있던 소장본을 다시 등사하여 동 대학교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으며, 그 밖에 언제 어디서 누가 필사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권상로(權相老) 소장본을 필사하여 동국대학교에, 이선근(李瑄根) 소장본을 등사하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각각 소장하고 있고, 또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마이크로 필립본 하나를 역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등 도합 6종이 현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 6종의 필사본을 비교 대조하여 보면 동국대학교본에서는 ‘啓發’을 ‘啓蓬’, 고려대학교본에는 ‘王儉’을 ‘王儉’ 등으로 잘못 필사한 흔적이 간혹 발견될 수 있을 뿐 그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먼저 영본과 양필본을 비교하여 보면 러원 발간 《단군실사에 관한 고증연구》이 책에는 ‘영본에 대한 언급은 없다’에서 판본의 종류를 밝힌 부분을 일부 전제하면 다음과 같다. 현전하는 《구원사화》가 A.D.1920년부터 A.D.1930년 사이에 단

군교도들에 의하여 복사 또는 등사되고

(끝)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67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건국절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 자존심과 국제적 수치이다.

사실 재외공관에서도 건국절 행사 보다 광복절 행사위주로 하다 보니 초창한 주재국과 외교사절에게 대한민국의 위상보다 과거일본 식민지였음을 알리는 행사가 되고 있다.

외국의 건국절 사례를 보면 북한은 9월 9일이다. 1948년 5월10일 남북한 총선에 불참한 북한은 1948년 8월25일 별도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선출된 572명의 대의원이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여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9월8일 헌법을 선포하고 9월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중국어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1949년 10월 1일을 건국절로 정하고 있다. 일본은 기원전 600년경 진무천황(神武天皇)이 즉위한 2월11일을 건국절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리민족의 최초국가인 단군왕검의 고조선 건국일인 기원전 2333년 10월 상날(10월3일)을 개천절(開天節)로 정하여 국경일 행사를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8월 15일은 명칭이 어떻든 우리나라의 최고 경축일이다.

그러나 건국절 행사가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이 탄생한지 67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건국절 행사를 떳떳하게 못하는 것은 국가정체성 훼손뿐 아니라 국가적 수치다.

이는 광복의 본래 뜻이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을 의미하는데 해방의 뜻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상을 높이고 국민통합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조속히 법률을 개정하여 광복절 대신 대한민국 건국절(독립기념일)로 용어를 통일하여 건국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한다.

한다. 선생은 경기포천 출신으로 고종(高宗) 때에 문신이였으며 나중에 전라남도 순창에서 임병찬과 의병을 일으키고 의병장으로서 분투하신 분이다. 1833년(순조 33년)에 출생하시어 1906년(광무10년)에 순국하시었다. 관직은 공조참판에서 1894년 공조판서까지 올랐다. 상고하여 보면



# 개혁의 군주 복위 효문제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 교수, 삼학고전연구소 소장)

위, 진, 남, 북조 시대에 복위는 후에 남조를 무너트리는 수·당을 있게 한 토대를 만든 왕조이다. 북조는 사실 모두 이른바 흉노족, 선비족을 비롯한 북방종족들이 중원지역으로 내려와서 세운 왕조들이다. 남조는 원래 중원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운 왕조라면 북조는 중원에서는 북적(北狄)이라고 아만시하던 종족들이 세웠다.

북위(北魏)도 북조였으므로 북적이라고 불리던 선비족(鮮卑族) 가운데 한 지파인 탁발씨(拓拔氏)가 세운 왕조이다. 탁발씨의 북위는 무력으로 남쪽 중원지역으로 내려 왔으나, 중원지역에 계속 머물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원래의 근거지에 머물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효문제 탁발굉은 북위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중원지역으로 본거지를 옮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선비족의 근거지인 대(代)에 있던 도읍을 낙양으로 옮겼다.

선비족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지역으로의 개혁이었다. 비록 무력으로 낙양을 점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산 설고 물 설은 낯선 땅이었다. 반대하는 사람이 많게 마련이다. 그러나 효문제의 입장에서는 낙양으로 천도해서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약에 실패하기라도 한다면 언제 정적이 나타나서 자기의 자리를 노릴지 모를 일이기도 하였다.

그리기 위하여서는 그동안 선비족이 지니고 있던 것을 개혁하여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했다. 그래서 효문제는 황제 스스로 친위적 개혁의 모범을 보여야 했다. 한번은 효문제가 지방 순시를 하는 중에 남쪽의 강소성에 있는 사수(泗水)에서부터 황하로 들어가서 험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낙양(洛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위험이 따르는 항로였다. 더구나 북방에 근거를 두었던 선비족은 물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신하들은 두려워하였다. 황제가 위험하게 배를 타면 안 된다고. 그러나 효문제의 생각은 달랐다. 북위 경음(京邑, 대)의 백성들이 가난한 이유는 도읍인 평성(平城, 산서성 대



동시)에 조운(漕運)하는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낙양(洛陽)으로 천도하였으니 조운을 통한 유통이 가능하고, 그것을 통하여 물자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부강하게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하여서는 물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했다.

그래서 그는 선비족들이 가진 이 두려움을 깨려고 하였다. 효문제는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탔다. 그리고 말하였다. “백성들이 황하의 물길이 험난하다고 깨리고 있으니, 그러므로 짐이 이번의 행차는 백성들의 마음을 열기 위함이다.” 백성들에게 이것이 살길이라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모범 정신은 그 후에 천도를 바라지 않는 귀족들의 반란이 있었지만 이를 모두 극복하고 북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개혁이란 쉽지 않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기에 앞으로 닥칠 어려운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차라리 현재에 만족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들에게 위험은 극복할 만 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에 안주하려는 사람의 반대를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양방향의 노력과 능력이 없이는 개혁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효문제는 앞장서서 이것을 성공시켰다. 그래서 그 뒤를 이은 수(隋)·당(唐)이 중원에서 통일왕조를 건설할 수 있었다. 선비족으로 중원의 주인이 된 것이다. 아만족이라 불리던 북적의 북위 효문제는 개혁을 통하여 문명인이라 자칭한 한족을 지배할 수 있게 하였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 개혁이라는 말은 요즈음도 많이 들리지만 개혁이 성공 못하는 이유는 개혁으로 맞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여 성공시킬 능력도 없이 구호만 부르짖는 때문이 아니겠는가? (다음호에 계속)

# 권기환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권기환(權起煥, 31, 안동 36세 동정공파)는 동정공(휘 취)의 16세손이며 자주국방에 헌신하고 있다. 권 선임연구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입학하여 학부와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논문 “이중직격관을 이용한 정동형 히트파이프의 열 성능에 관한

연구”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가족으로는 부친 권오영(현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모친 최원남 여사가 있다. <권혁세 기자>

# 권오진 석보중학교 교장



지난 9월 1일 권오진씨(權五珍, 56, 임동)가 석보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했다. 권씨는 경안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안동대학교 사범대 영어교육과와 同 교육대학원을 수료해 1988년 3월 물야중학교 교사로 발령되어 봉화고, 울릉중, 예천여중, 지보고, 봉양중, 의성여중 교사를 거쳐 축산중학교 교감, 안동교육지원청 장학사를 지냈으며 금년 9월 1일자로 석보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해 20여년간 교육발전전에 크게 헌신했다. “‘성실’, ‘열정’, ‘지혜’, ‘명철’로 살자”라는 생활신조와 “인재는 어느 날 하

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성장하며 육성되는 것이다”라는 교육관으로 참스승으로 한길을 걷고 있으며 안동관내 중학생 해외어학연수 추진과 사랑의 하모니 안동고 합창단 조직 운영 등을 했으며 교육부장관, 교육감 포창 외 다수 수상,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다. <권혁세 기자>

#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9월 23일 현재)

<p>□ 총재단회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영성(부총재) 100만원</li> <li>△권계동(상임부총재) 100만원</li> </ul> <p>소 계 200만원</p>	<p>□ 중무위원회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기호(안동, 대종원) 20만원</li> <li>△권종달(포항, 부정공파) 20만원</li> <li>△권혁채(서울, 추밀공파) 20만원</li> <li>△권석원(양주, 추밀공파) 20만원</li> <li>△권동원(대전, 추밀공파) 20만원</li> <li>△권박원(대전, 추밀공파) 20만원</li> <li>△권호준(대전, 추밀공파) 20만원</li> <li>△권욱형(금사중공파회장) 20만원</li> </ul> <p>소 계 160만원</p>
<p>□ 대의원회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상현(광주, 추밀공파) 10만원</li> <li>△권기호(안동, 정조공파) 10만원</li> <li>△권인순(대전, 추밀공파) 10만원</li> <li>△권유수(서울, 대종원) 10만원</li> <li>△권정수(부산, 북아공파) 10만원</li> <li>△권태근(수원, 검교공파) 10만원</li> <li>△권장승(서울, 금사중공파)10만원</li> <li>△권욱경(원주, 금사중공파)10만원</li> <li>△권순신(원주, 금사중공파)10만원</li> </ul> <p>소 계 100만원</p>	<p>합 계 460만원</p>



# 바로잡습니다

본지 (총보 제483호 9월1일) 3면 「謹弔 權五熙 會振 逝去」만사란에 신근(慎勤)을 신근(慎勤)으로 바로잡습니다.

으로는 프랑스 미국 러시아 청(淸) 일본 등과 국제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의제가 불발듯이 밀어 뒀었다. 국내적으로는 대원군의 10년 섭정으로 민비(閔妃)와의 정치적인 갈등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과도기를 맞이 하였다. 이 시기에 대원군의 주된 개혁정치의 공과는 안동김씨의 세도정치를 타파하고 왕권을 회복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여러 가지 국정개혁을 단행하였다. 몇가지 예를 들면 인재를 등용하는데 있어서는 당파와 문벌을 배제하였고 서북인을 차별화 아니하고 탐관오리를 찾아내어 엄벌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쳤다. 결국 이 상소는 대원군이 실각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는 민비(閔妃)가 간접적으로 지시하였다 는 설이 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군부(君父)를 논(論)하였다고 하여 형식적으로 최익현선생을 제주도에 귀양을 보냈다. 그 후 1905년 을사조약체결을 결사적으로 반대하여 의병을 일으켜 일제에 맞서 항전하다가 결국 체포되고 만다. 그 때의 시대상은 대한제국에 풍운의 검은 먹구름이 드리운 시기였다. 국의적